

『전쟁의 문헌학: 15~20세기 동중국해 연안 지역의 국제전쟁과 문헌의 형성·유통과정 연구』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이 책의 저자 김시덕 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인 『이국정벌전기의 세계』를 통해 16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일본이 경험한 국제 전쟁이 기억, 기록된 양상을 계보학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외국과의 전쟁을 기록한 일본 문헌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전쟁 정당화 논리를 분석한다는 장기적 연구 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후속편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유통된 일본 문헌, 특히 역사 및 전쟁과 관련된 문헌의 전모를 추적하고 있다. 이 책은 비단 임진왜란 이후 조일 양국 간의 문헌교류의 양상을 치밀하게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문헌들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과 자국의 전쟁기억을 구성하기 위해 그것들을 전유(appropriation)하는 양상까지도 연구시야에 넣은 보기 드문 노작으로서 조선과 일본의 근세 사상사, 문화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자는 19세기 외교사 전공자로서 문헌학은 물론 에도시대 사상사에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초보적 질문 몇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저자는 과거 『교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 책 351쪽에 수록된 ‘조선시대 후기에 한반도에 축적된 에도시대 일본의 병학(兵學)’ 문헌 리스트는 필자가 이 책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바를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의 도달점이다. 『南浦文集』, 『擊朝鮮論』, 『本朝武林傳』 등의 문헌을 매개로 조선과 도쿠가와 일본 간에 병학 정보가 유통됐고, 이덕무의 『靑莊館全書』 65 「蜻蛉國志 2 兵戰」에 수록된 일본의 대외전쟁사·병학 관련 논문은 그 정점으로 평가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교수신문』, 2017.3.28.) 그런데 일본의 특정 문헌이 조선에 수입되었거나 그 이름이 알려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선 지식인들은 과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읽었으며, 또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가이바라 옛켄(貝原益軒)의 『擊朝鮮論』을 인용한 성호 이익의 「日本地勢辨及擊朝鮮論」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내가 이 변론을 살펴보니, 혹 우리나라의 전해온 것과 같지 않음이 있기는 하나 전체를 참고해 볼 때 이쪽저쪽을 다 드러내어 그 정상이 비로소 밝아졌다. 예를 든다면, 벽제의 싸움에 이어송이 실패한 것을 기피함으로써 그 상세한 사실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 논에서 가장 기이한 공으로 기록했으니 이것이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서로 버티면서 사신이 계속 왕래했지만, 융경(隆景)이 모주가 되고 저 청정과 행장은 하나의

편장(偏將)임을 아는 이가 없었으니 왜정(倭情)을 살피기 어려움이 이와 같다. (중략) 대개 왜인은 군사를 통솔하는 기율이 없고, 다만 강한 힘과 간사한 피와 날카로운 칼과 빠른 탄환을 믿기 때문에, 경솔히 전진하는 자도 금하지 않고 실패하여 후퇴하는 자도 벌이 없는 지라, 비록 수가가 대장이 되고 융경(隆景)이 모주가 되어서도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그 군사를 다루는 것과 기율을 쓰는 것이 도리어 비장·편장과 같으니, 이것이 왜들의 단점으로 왜를 방어하는 자의 알아야 할 것이다. (후략)

적어도 이 글만 놓고 본다면 성호의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임진왜란 당시의 왜정(倭情)이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전사(戰史)를 보완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일본의 대외전쟁사·병학 관련 논문의 정점’이라고 평가한 이덕무의 「병전」 또한 일본의 진법(陣法), 검술의 유과, 병제(兵制), 무기, 상벌(賞罰) 등에 관해 간략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백과사전식 나열에 가까울 뿐 본격적인 병학이라고 보긴 어렵다.

18세기 이후 일부 실학자들에 의해 일본의 군사(軍事)나 전사(戰史)가 소개되긴 하지만, 그것이 조선 지성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는지에 관해선 여전히 설명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 책 351쪽에 인용된 8개의 문헌들에는 조선에 그 서명(書名)만 알려졌거나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도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18세기 이후 조선에 소개된 일본 병학이 지성계나 군사방위 체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가? 또한 조선에 수입된 일본문헌의 목록과 일본에 수입된 조선 문헌의 목록을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이 간취되는가?

2. 제1부 제1장에 따르면, 『동국통감』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전과되어 1667년에 하야시 가호의 교감을 거쳐 『신간동국통감』으로 편찬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본 『동국통감』이 아닌 『신간동국통감』이 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두 판본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또 저자는 “『본조통감』은 『동국통감』에서 영감을 얻었고, 『대일본사』는 『본조통감』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35쪽) 이 문장은 『대일본사』의 성립에 『동국통감』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주지하듯이 『대일본사』의 편찬은 전기 미토학의 기념비적 업적으로서 이후 막부 말기의 존황양이론(尊皇攘夷論)과 국체론(國體論)의 형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바,¹⁾ 『동국통감』이 『대일본사』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역사에 관계된 사실을 단순 인용한 것 외에 『동국통감』은 편제나 한반도에 대한 인식 등에서 『대일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 『大日本史』: 일본 전설상의 초대천황 신무(神武, 재위기간: B.C.660~585)로부터 제100대 천황 고코마츠(後小松, 재위기간: 1392~1412)까지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천황들의 통치를 기전체로 기록한 역사서로, 본기(本紀) 73권, 열전(列傳) 170권, 기타 154권 등 총 39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657년 제2대 미토번주 도쿠가와 미츠클(德川光圀)가 저택에 쇼코칸(彰考館)이라는 역사편찬소를 설립하고 편수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250년이 지나 1906년에야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3. 저자는 제1부 제2장에서 “일본인이 주인공인 삼국지연의, 수호전을 만들고자 한 전근대 일본인들의 열망이 <임진왜란 연의>라 부를 만한 군담 문헌군을 탄생시켰으며, 『다이코기』로 대표되는 일본 문헌, 『양조평양록』으로 대표되는 명나라 문헌, 『징비록』으로 대표되는 조선 문헌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일본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집성” 되었다고 주장했다.(123쪽) 임진왜란은 조선·중국·일본의 3국이 벌인 국제전이였다. 따라서 만약 3국의 문헌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셔널 히스트리를 지양한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를 모색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혁신적인 역사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징비록』은 일본의 군담 문헌군에서 ‘주요한 정보원’(157쪽)에 그쳤는가? 그것은 군담 문헌군의 형성과 당대 일본인들의 조선관이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 토론자의 전공과 관련해서, 위당(威堂) 신현(申櫛)이 1867년에 쓴 『民堡輯說』에 민보(民堡)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일본인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가 1825년에 쓴 『新論』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근일 일본인이 저술한 『新論』에 민보에 관한 논의가 있으니 발췌하여 첨부한다. 그 「守禦」편에 이르길, ‘지금 연해 지역에 오랑캐가 드나드는 통로가 아닌 구역이 없으니, 일단 일이 생긴 뒤에 군대를 징발해서 급히 보낸다면 한갓 스스로 피폐할 뿐, 당연히 때에 늦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장(保障)의 설치와 둔수(屯戍)하는 병사에 관한 제도를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이초(慶長)·겐카(元和) 이래로 천하의 다이묘들에게 명하여 구니(國) 당 1개 성(城)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세력을 억누르고 재앙의 근원을 막으며, 호령(號令)을 획일화해서 변고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랑캐의 변고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변방의 백성은 보취(保聚)할 수 있는 요새와 보루가 없으면 무언가에 의지해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없고, 관할하는 보갑(保甲)이 없으면 무언가에 기대어 그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용병의 도(道)는 진퇴(進退)에 절도가 있고 고무(鼓舞)하는 데 기술이 있으니, 참으로 이를 잘 사용하면 비록 부너자라도 방수(防守)를 보조하게 하고 물과 불 속이라도 뛰어들게 할 수 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장정이라도 무너지고 흩어져서 쓸 수 없습니다. 외적이 오면 백성은 산골짜기로 뿔뿔이 달아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할 텐데 누가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엔 변군(邊郡)에 성보(城堡)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제도를 모두 쓸 수는 없지만, 짐작(斟酌)하고 상의하면 반드시 시의(時宜)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新論』은 그 과격한 주장과 언사로 인해 1857년까지 일본에서도 저자 미상의 필사본과 목판본 형태로 유통된 금단의 책이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출판 해금된 지 불과 10년 만에 신현이 이를 입수해서 자신의 글에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811년 마지막 통신사가 귀국한 뒤로 조일 간의 공식적 왕래는 단절되는데, 통신사 외에 별도로 일본 문헌의 수입 루트가 존재했는가?